

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 “상근직원으로 부터 갑질당했다”

“부당업무 강요·인격모독·성희롱 당했다”

관계자들, SNS로 ‘부조리 규탄 성명서’ 발표

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들이 “극단의 상근단원 등으로부터 부당업무 강요, 인격모독,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립극단 작품 전우치에 출연한 조연출과 배우 등 4명은 20일 SNS를 통해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6월22일 전우치 배우들의 첫 연습이 시작됐으며 상근직원 등에게 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했지만 다른 작품 공연으로 인해 직원들이 없다며 계약을 미뤘으며 이 과정에서 배우가 연습도중 발가락 골절까지 당했

다”고 주장했다. 또 “예전 작품 인연으로 연극 ‘전우치’에 조연출로 참여했지만 급여가 인상됐다는 이유로 음향오퍼레이터 일까지 담당하게 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로부터 ‘조연출이 공연을 망치려고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품에 필요한 무술 연습 중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어 출연이 어려운 배우에게는 전문기만이 할 수 있는 특수장지 폭약장지 제조와 설치까지 맡겼고 배우가 손가락 화상을 입기도 했다”며 “고

난도 액션이 필요한 작품이어서 보험가입이 필수였지만 이조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객원단원들은 상근단원의 성희롱적인 발언도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배우 1명이 연습도중 다친 것을 두고 상근직원은 ‘몸이 무거워서 발을 다친 것이다’ ‘살을 빼야지’ 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수시로 했다”며 “2개월 남짓 연습기간 동안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광

주문화예술회관과 광주시 읍부즈맨 측에 알렸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우치 광주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성명서가 올라오기전 지난 14일 문제제기가 있어 광주시읍부즈맨과 함께 객원단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공식 문제제기에 대해 좀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 기다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객원단원들이 책임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극단은 판타지 연극 ‘전우치 컴백 위드 바리’ 공연을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2차 공연이 펼쳐지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극장에서 열리는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리데’에서 재공연된다.

유이나 기자



분주한 마스크 공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 안산시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역류한 영산강이 유출시킨 농약 방류수 검사결과 ‘안전’

수질 검사 11개 항목 모두 ‘불검출’

집중 호우로 영산강 물에 잠긴 광주 서창마을 농약 창고에서 유출된 방류수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영산강물 역류로 침수된 서창마을 일대 농약 창고 3곳에서 유출된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서구는 침수 당시 방류수에서 채취한 시료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항목은 ▲구리 ▲비소 ▲

카드뮴 ▲시안 ▲수은 ▲노르말렉산 ▲유기인(다이아지논·파라피온·이피엔·메틸디메톤·펜토에이트) 등이며, 모두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

침수 당시 농약에서 나온 화학 성분으로 보이는 기름띠가 물 위에 뜨자, 서구는 흡착포로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농약 창고 관리자들에 대해선 ‘보관 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계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창고 내에 대부



8일 광주 서구 서창동 영산강변 서창농협 영농자재센터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겨 침수됐다.

분 밀봉된 농약이 있었고, 폐병 40여 개에 담겨있던 미량의 농약이 흘러나와 수질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수해가 남기고 간 엄청난 쓰레기 더미, 주민 불편 ↑

광주 북구, 지난 1주 동안 1020t 수거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광주 북구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20일 북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폭우가 지나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1020t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북구는 권역별 쓰레기 수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해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워낙 많아 원활한 수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구는 앞으로도 1000t이 넘는 수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신안동 모 아파트 주민은 “쓰레기가 통행로를 막고 있어 지나다가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구청에서 청소 차량을 한 차례 보내 수해로 인한 쓰레기의 절반가량을 치웠는데 아직 많이 남았다. 신안

동 일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구청이 이 곳만 신경 쓸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소장은 “하지만 주민들이 통행 문제를 비롯한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일대 주택가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범람한 광주천 지류가 만들어 낸 쓰레기가 아직도 거리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민(76)은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했다. 외관상 좋지 않고 통행도 굉장히 불편했다. 그나마 수거작업이 끝나가서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나 “남은 대형 폐기물



9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주택단지 앞 도로가에 폭우 피해로 발생한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다.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구청에서 이 부분도 조치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해 상황이 나아졌지만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청에서 개인 폐기물은 치워줄 수 없다고 말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서선숙 기자

‘또 유흥주점발 n차 감염’ 광주서 247번째 확진자 발생

기존 확진자와 접촉 확인 돼 자가격리 중 확진

광주에서 유흥주점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 지역 누적 환자가 247명으로 늘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신안동에 사는 10대 여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247번 환자로

지정됐다.

247번 환자는 유흥주점 관련 감염 사례인 226번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 격리 중이었다.

이후 발열·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전남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방역당국은 247번 환자를 유흥주점 관련 n차 감염자로 분류했다.

이로써 유흥주점과 직·간접적으로 감염 연관성이 있는 지역 확진자는 21명이다.

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였던 247번 환자의 외부 동선과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